

전주-멜버른 어린이 교류 행사 열린다

전주문화재단, 15일~3월 2일 팔복예술공장서 진행
1:1 · 그룹 예술놀이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 접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멜버른 어린이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전주문화재단과 호주 멜버른시 산하 공립기관인 아트플레이(ArtPlay, City of Melbourne)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멜버른 아트플레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행사의 주제인 '쌍둥이 도시의 그림자들(Shadows in Twin Cities)'은 전주와 멜버른을 쌍둥이 도시로 설정, 8,400km 떨어진 두 도시의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양국이 공동 개발한 이번 콘텐츠는 호주 멜버른에서 3년마다 열리는 국제공연예술 트리엔날레 '2025 아시아 토포 페스티벌(Asia TOPA Festival 2025)'에 참가하는 공식 프로그램으로, 전주예술놀이의 독창성을 국제무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성과를 거뒀다.

행사에서는 △어린이 1:1 예술놀이 프로그램 <너랑 나랑(Meet Me)> △비디오 아트워크 전시 <바람을 만난 그림자(Watch Me Fly)> △공공참여형 전시 <그림자 숨바꼭질(Find My Shadow)> 등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사진작가 유기종과 호주의 퍼포먼스 아티스트 제시카 윌슨(Jessica Wilson)이 참여하며, 양국의 만 8~12세 어린이가 60여 명이 사전 접수를 통해 1:1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전주문화재단과 아트플레이는 2021년 상호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5년째 협력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이 공공외교의 영역까지 확장된 선진적인 사례"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와 멜버른 시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연결된 세계시민으로서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예술놀이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지프지기' 모집

자원활동가 3월 5일까지 접수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오는 3월 5일까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화제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 동안 영화제 전체 일정을 함께 하며 관객의 영화 관람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2006년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거주 성인,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재외동포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거나 '일반 모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도 '시니어 모집'을 통해 시니어 지프지기로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한국영화팀 △해외영화팀 △홍보미디어팀 △전주프로젝트팀 △마케팅팀 △관객서비스팀 △디자인팀 △씨네투어팀 △기술팀 △운영팀 △초청팀 △기획운영실 등 12개 팀 24개 파트로, 총 400여 명을 선발한다.

접수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s://jeonjufest.kr/>) 공지사항의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일(volunteer@jeonjufest.kr)로 하



면 된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영화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운영팀(volunteer@jeonjufest.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독립 예술영화 상영 '무주 시네마 클럽' 운영

무주산골영화관, 매주 월·화 상영... 2월 무주산골영화제 수상작 4편 만날 수 있어

무주산골영화관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무주 시네마 클럽'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 시네마 클럽은 영화 정기 상영 프로그램으로, 무주산골영화관에서 특정 주제에 맞춘 독립 예술영화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13:30~15:30 반다관, 태관관 / 관람료 3천 원)에 상영한다.

2월에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수상작 4편을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박수남, 박미의 감독)는 '뉴비전상'과 '무주관객상' 수상작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수작이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딸에 대하여>(이미랑 감독)는 엄마와 딸 그리고 딸의 연인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서울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남녀 이

야기가 다섯 배우의 연기 앙상블로 빛나며 '비컨힐 크리에이티브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작품 <미망>(김태양 감독), 농촌 생활의 주기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 '영화평론가상'을 수상한 영화 <지난 여름>(최승우 감독)과도 만날 수 있다.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무주 시네마 클럽을 통해 상업영화 외에도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들을 접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며 "영화의 고장다운 기획력과 안목, 그리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시네마 클럽' 관련 자세한 내용과 티켓 예매는 무주산골영화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시네마 클럽 포스터

진안 중평굿보존회, 8일 '망월이야' 정월대보름 행사

"을사년 첫 보름달 보고 달집 태우며 한해 소원 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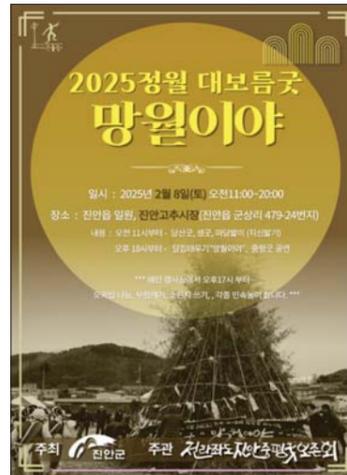
진안군은 오는 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안고원 고추시장(진안을 군산리 479-24) 일대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한다.

'망월이야'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라북도 진안 중평굿보존회(대표 이승철) 주관으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우화산, 진안군청 뒤 담산나무) 아래에서 담산 굿을 하며 시작을 알린다. 이후 진안을 일원에서 뚝국, 가가호호 마당놀이 등 액운을 물리치는 흥겨운 풍물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라북도 진안 중평굿보존회는 2020년 '진안 중평농악(중목)'으로 전라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대보름'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농경 생활에서 중요한 세시풍속 중 하나로, 달맞이와 한 해 풍년과 복을 기원하며 부럼깨기, 더위팔기, 귀밝이술 마시기와 같은 풍습을 즐겨왔다. 또한 쥐불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도 함께 어우러지는 날이다.

이에 8일 행사장에서는 사전 행사로 소원지 쓰기, LED쥐불놀이 만들기, 제기차기 만들기, 세시민속놀이 등의 다채로운 문화체험이 마련된다. 오곡밥, 나물 등 보름 음식도 함께 나누며, 대보름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중평굿보존회



에서 준비한 부럼주머니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특히 보름달이 뜨면 달집에 불을 지피고 달집 추위를 돌며, 한 해의 액운을 날리는 중평굿보존회의 액막이굿, 정월대보름굿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상반기 수시대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 2025년 상반기 수시대관 접수를 시작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리집(www.jbct.or.kr)에서 대관 신청서와 전시(공연)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trlovely@jbct.or.kr)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재단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21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

지할 예정이다.

전시실 대관 기간은 2025년 3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실 보수와 기획전시 기간은 대관이 제한된다.

공연장 대관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의 일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대관 시설은 238석의 공연장과 6개의 전시실

로 구성됐다. 전시실은 기스라1(95평), 기스라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라네(66평), 산마루(23평) 등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도민이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술회관은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과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관 관련 문의는 재단 누리집과 예술회관 운영팀(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